■주한 英 문화원 '정통 영어' 교육 현장 찾아보니

광주시교육청은 주한 영국문화원과 영국계 보험회사인 PCA생명의 후원을 받아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원어민 교사가 없는 광주시내 9개 초등학교에서 'PCA 잉글리시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프로그램은 지난 20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경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금부초, 삼각초, 송정동초, 월곡초, 월봉초, 일곡초, 진월초, 태봉초 등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교실 및 특수 제작된 대형버스 내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영어를 배우고, 교사들은 워크숍을 통해 영어교수법을 배우게 된다. 주한 영국문화원 소속 원어민 강사 앤 채프먼(Anne Chapman·여·48)씨는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프먼씨가 경양초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국식 영어 수업을 따라가 본다.

주한 영국문화원 원어민 강사 채프먼씨가 지난 20일 경양초 5학년 학생들에게 ' 참, 거짓' 진실게임을 곁들여 영어 수업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공부 스트레스 안받게 게임 하듯 재미있게

광주 9개 초등학교 내달 13일까지 '잉글리시 어드벤처'… 학생들 큰 호응

◇브레인 스토밍

채프먼씨가 학생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모형 럭비공을 만지작거렸다. 채프먼씨가 "I like to eat chocolate, and you?(난 초콜릿을 좋아해, 너는?)" 하며 한 학생에게 공을 던졌다. 학생이 "I like to eat hamburger"라고 답한 뒤 공을 강사에게 돌려줬다.

채프먼씨는 같은 방식으로 9~10명의 학생들에게 대답을 유도했다. 술렁거리던 아이들도 게임처럼 진행된 수업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정윤미(여·38) 영어전담 교사는 "평소 수업에서 사용하기 힘들었던 많은 게임들을 알게 됐다"며 "학생들의 흥미를 어떻게 하면 유발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토리 텔링

채프먼씨는 셔츠(shirt), 양말(socks), 밀(oats) 등이 그려진 카드 몇 장을 꺼내들어 아이들에게 영어로 함께 발음했다. 이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류했다. 챕맨씨는 'Gertie, the goat(염소 거티)'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꺼내 들었다. 욕심 많은 염소가 주인 집의 옷가지 등을 먹어치우다 배탈 때문에 혼나는 내용이었다.

이미 주요 단어를 먼저 배운 아이들은 쉽게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동화에 나온 단어가 적힌 수십장의 단어 카드를 5~6명으로 나뉜 그룹에 나눠준 뒤 발음이 같은 단어끼리 분류하는 게임을 했다. 윤수미(10·5학년)양은 "학교나 학원에서 영어를 배울 때와 달리 설명이 더 재미있는 것 같다"며 "수업 중인 것도 잊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게임

채프먼씨는 동화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진실게임을 진행했다. 그룹별로 'TRUE(참)', 'FALSE(거짓)' 카드를 나눈 뒤 명제를 하나씩 던지자 상황에 맞게 학생들이 카드를 들어올렸다. 학생들은 이 게임을 통해 수업에서 배웠던 동화의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교실 및 특수 제작된 대형버스 내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

채프먼씨는 "주입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초등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동화를 교재로 수업을 하더라도 여러 게임을 곁들여 자연스럽게 내용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과기원에 '亞레이저센터'

고등광기술연, 年內 설립… 오늘 '극초단 워크숍' 개최

아시아의 광기술을 주도하게 될 '아시아레이저센터(가칭·이하 센터)'가 금년 중 광주과학기술원에 설립된다.

광주과기원 고등광기술연구소(APRI·소장 이종민)는 21일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대한 지원을 통해 '양방향(Two-way) 과학기술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레이저센터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아시아 국가의 신진연구자를 초청해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학술행사 ▲국제 연수 프로그램 ▲국제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설립에 앞서 고등광기술연구소는 22일 아시아 지역 레이저 전문가들을 초청,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이용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시아레이저센터 주비위원회'도 함께 개최된다.

워크숍에는 인도 타타 연구소(Tata Institute of Fundamental Research)의 마수르(D. Mathur) 박사, 베트남 과학기술원 (Vietnamese Academy of Science & Technology)의 팜롱(Pham Long) 박사 등 한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6개국 약 10여명의 아시아 지역 학자들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양자구조에서의 초고속 동역학, X-ray 이미징, 레이저 가공 등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을 활용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대, 국제규격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광주대가 국제경기장 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과 우레탄 육상트랙, 다목적 구장 등을 갖춘 종합 레저스포츠 시설을 조성했다.〈사진〉

특히 축구장의 경우 국제대회 진행이 가능해 광주시가 현재 전력 추진 중인 2013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대는 오는 24일 오전 9시20분 교내 대운동장에서 인조잔디 축구장 준공식을 갖는다. 축구장은 광주대 중·장기 발전계획인 'GU VISION 2030'에 따라 마련됐으며 교비 29억9천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3억2천만원 등 모두 33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축구장은 길이 100m, 너비 64m의 국제경기장 규격이며,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럭비풋볼연맹(IRB)이 동시 승인한 호주산 폴리그라스 프리미엄 엠티(Poligras Premium MT) 65㎜ 인조잔디가 깔려있다.

한편 광주대는 이날 축구장 준공에 맞춰 개교 28주년 기념 광주대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갖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캠퍼스 소식

조선대-여수시 엑스포 성공 개최 협력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종)가 여수시(시장 오현섭)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학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전호종 조선대 총장은 21일 여수시청 2층 상황실에서 오현섭 여수시장과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조선대는 여수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자원봉사 및 통·번역 인력지원, 박람회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지역 인재양성과 학술연구 등 관·학 협동 연구사업, 기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남대 제9기 학생홍보대사 28명 선정

전남대학교는 제9기 학생홍보대사 28명을 선발하고, 지난 20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반 등 4개 분야 홍보대사로 선발된 학생들은 앞으로 교내 캠퍼스 투어와 대외 기관 방문을 통해 전남대학교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된다. 전남대 측은 "특히 올해는 베트남과 중국 유학생을 홍보대사로 선발해 국제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대학聯 대학발전방안 세미나

호남대 등 8개 지방대학 모임인 한국지역대학연합은 22~23일 이틀 동안 목포 현대호텔에서 제29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대학 취업경쟁력 향상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기조강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박종구 2차관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진흥과 대학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박철민 경남대 학생처장이 '경남대 취업경쟁력 강화방안'을, 권용석 전주대 학생생애개발부처장이 '취업경쟁력 향상방안'을, 윤천균 호남대 인력개발센터실장이 '수요자 중심의 3+1교육체제운영을 통한 기업주문형 인재양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